

탁월한 미끌림 방지 기술 갖춘

안전장갑 출시

신성메이저글러브

어느 사업장에서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는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신체가 바로 손이다. 이 때문에 업무 중 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신체부위도 손이다. 이러한 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안전장갑을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산업용 장갑 전문 제조업체인 신성메이저글러브의 제품이다. 신성메이저글러브는 1997년 설립된 이후 10여 년만인 2010년, 수출액 300억불을 기록하며 안전장갑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연간 8000만 젤레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로 고성능·고품질의 안전장갑을 생산하고 있다.

쾌적한 작업환경 제공

신성메이저글러브의 LGM-293 역시 이 같은 기술력이 뒷받침돼 있다. 이러한 기술력이 작업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 굴곡성이 좋은 내피를 포함하고 있어 손 움직임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더구나 부드러운 소프트 폼 코팅으로 착용감이 탁월



SM513S



LGM-293

1972년 개발에 성공한 아라미드 섬유를 활용해 안전장갑인 SM513S도 내놨다. 이 제품은 분해온도 400도 이상의 고내열성과 영하 160도에서도 섬유의 특성을 유지하는 우수한 내한성을 가지는 등 안전장갑으로써의 강력한 기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밖에 절연성, 내약품성을 나타내는 첨단 소재로 만들어져 작업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보장한다. 참고로 해당 재질은 방탄복이나 선박용 로프, 골프채 등에 쓰일 만큼 강한 내구성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적 다양성

신성메이저글러브는 비단 안전기능의 요소뿐만 아니라 시각·디자인의 측면도 강화했다. 사용자 기호에 따라 빨강, 파랑, 검정 등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어, 장갑의 시각적 단조로움을 해소했다.

신성메이저글러브의 한 관계자는 “강력한 미끌림 방지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최선의 기술을 집약해 만든 안전한 명품 장갑”이라고 밝혔다. ☺

하다. 아울러 CO₂ 폼 발포를 통해 통기성이 좋다는 특징도 장갑을 사용하는 작업자의 근무 환경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요소다.

이밖에 그립마스터(Gripmaster) 코팅이라는 다공처리 기술(Micro Finish Coating)을 이용해 강력한 미끌림 방지기능을 구현, 뛰어난 통기성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사용자의 피로도를 절감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강력한 안전성 보장

신성메이저글러브에서는 미국의 듀폰사가